

장성 청년이 개발한 '챔버형 스마트팜' 해외 시장 진출

일반 스마트팜 대비 6배 공간 절약 효과... 농작업 효율성도 높여

장성군 지역 업체인 '테라웨이브'가 생산한 '챔버형 스마트팜'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고 2일 밝혔다. '챔버형 스마트팜'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절약'에 있다. '챔버'는 방이나 거실을 뜻하는 단어로, 그만큼 많은 공간이 필요치 않다는 특징을 드러낸다. 가로, 세로로 겹겹이 위치한 '작물 베드(bed)'를 고유의 순환 시스템으로 연결해 농업인이 원하는 곳까지 손쉽게 옮긴다. 한 자리에서 작물을 관리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높으며 온·습도, 일조량 등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첨단 제어 기술도 갖췄다. 일반 스마트팜 대비 1/6 규모 부지에 조성할 수 있는데다 1인 농작업이 가능해 경영 부담도 줄어든다. 작은 공간과 뛰어난 효율성을 강조하는 일본 시장 진출이 가능했던 이유다. '테라웨이브' 문영철 대표는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줄여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 농산물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 본인도 '챔버형 스마트팜'을 통해 월 평균 10만 뿌리의 새싹을 재배하는 농부다. 지난 28일 '챔버형 스마트팜' 시연회에 참석한 김한중 장성군수는 "참신한 발상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 진흥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군도 '임대형 스마트팜'의 성공적인 조성과 인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이 스마트



팜 기반과 온실, 에너지시설 등을 갖추면, 청년농업인이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앞서 장성군은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농촌 청년사

업자 양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문영철 대표를 지원한 바 있다. 군은 앞으로도 '테라웨이브'와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장성=심재식 기자

'2024 영광 방문의 해' 인플루언서 팸투어 모집

영광군은 2024 영광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통해 1천만 관광객 유치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4월 2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불무산행복숲, 백계불교최초도래지, 숲생이 공원, 백수해안도로, 칠산타워, 불갑사 등 영광군 대표 관광지를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둘러보는 일정으로 참여자에게는 숙박, 교통비 등 여행경비 전액과 기념품이 지원된다.

팸투어 참가자격은 영광군이 아닌 타지역에 주소록을 둔 18세 이상의 SNS 인플루언서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 이상, 블로그 나를 추가한 이웃 500명 이상, 유튜브 구독자 500명 이상 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아울러, 투어 후에는 10일 이내 각자의 SNS에 여행 후기를 게시하여야 한다. 모집인원은 15명이며 인원 초과 시 광고가 마감된다. /영광=서종민 기자

광양, 진월면 50~70대 주민 기생충 감염 전수검사 실시

광양시는 지역사회 기생충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진월면 50대~70대 주민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감염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양시는 전수검사 대상인 다담면 포함 총 8개 읍면동 거주 주민 1,018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기생충 감염 125건이 나왔다. 기생충 감염 125건 중 다담면에서 102건이 나왔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감염률이 높았고 연령별 감염률은 50대, 40대, 60대, 8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생충 감염률이 높은 섬진강 주변 지역인 진월면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진월면 주민 50대~70대 외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광양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문의하면 무료로 기생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광양=조순익 기자

영암 농특산물·가공품 카카오테이크에 호응

영암군이 오는 8일까지 카카오테이크스 플랫폼에 대표 농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을 선보인다. 영암군과 카카오테이크스와의 이번 협업은, 337만 명 카카오테이크 가입자에게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자리이다.

지난 1월 두 기관은 영암군청에서 '영암군 농특산물 유통망 확대 업무협약식'을 열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와 마케팅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이번 홍보는 그 후속 협업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대형 유통 서비스인 카카오테이크는, 민선 8기 영암군의 농특산물 브랜드 '농부남생이' 가치와 스토리를 카카오테이크 채널 가입자에게 전달한다. 나아가 공동 주문을 받아 주문 제작 방식으로 영암 농특산물·품을 출하하도록 만들어 재고 부담 없는 판매를 돕는다. 이번 홍보에서는 영암군은 달마지쌀, 학이머문쌀, 고구마, 어란과 고구마 누룬지, 무화과잼, 양귀비편을 소개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영암군 농특산물이 전국적 인지도를 얻도록 고품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신안 '팔금 섬 유채꽃 축제' 취소

"이상 기온 속 유채꽃 70~80% 생육 부진"

신안군이 이상기온으로 유채꽃 생육이 70~80%에 그치면서 예정됐던 축제를 전격 취소했다. 신안군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팔금면 유채경관 단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4 팔금 섬 유채꽃축제'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유채꽃 생육이 70~80%에 그친데 따른 것이다. 축제가 열리는 팔금면에는 231ha의 유채 경관단지가 조성돼 노란 유채꽃이 피는 시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군은 축제는 취소했지만 '엘로우의 섬' 팔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장목 주차장 일원에 유채꽃을 배경으로 하는 탐방로는 개발할 계획이다. 최낙신 유채꽃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축제가 취소된 만큼 내년에는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축제를 준비하겠다"면서 "내년에 유채꽃 만발한 엘로우의 섬 팔금면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신안=강복복 기자

순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 기관표창

순천시 보건복지부 겨울철(2023년 11월 ~ 2024년 2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우수지자체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겨울철 위기가구 우수 지자체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실적 및 노력, 민관협력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지며, 순천시를 포함 전국 23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순천시 우수사례로 대학 주변 원룸·빌라 위기가구 발굴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 임대아파트

관리소장들 간담회, 민간 돌봄봉사자 교육, 어르신 안부 묻는 우유배달 사업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마중물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 이동장단 등 민간과 협력으로 위기가구 집중 전수조사를 통해 861명 발굴, 매주 안부 살핀과 아울러 물품 후원 및 푸드뱅크 등에 연계했다. 기부물 통한 후원 모금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희망2024나눔캠페인에서는 전년 대비 155.7%인 10억 6600만원을 모금하여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패 수여 등을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순천=조순익 기자

목포, 고향사랑기부금 1억 돌파 기념 이벤트

목포시가 금년도 81일만에 고향사랑기부금 1억 돌파를 기념하며 참여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진행되는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비기부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기부 참여의 보람과 추가 경품 획득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누리집이나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목포시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이

벤트 진행 시점부터 기부 순번이 100번째가 될 때마다 개별 통지한다. 이벤트는 목포 고향사랑기부금 2억 달성까지 진행되며 당첨자가 본인 SNS에 기부 인증시 3만원 상당의 경품이 지급된다. 기부자가 목포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하고 이벤트에 당첨된다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은 물론 추가 경품을 지급받아 총 1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목포=김재욱 기자

무안, 해피마미 출산 준비 교실 '성료'

남악·오룡 지역 임신부 대상 교육 '큰 호응'

무안군은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운영했던 해피마미 출산 준비 교실 프로그램을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악·오룡 지역 16주 이상의 임신부 20명을 대상으로 임신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임신부터 산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난 3월 총 8회에 걸쳐 진행했다. 교육은 △임신부 출산 및 산후과정 △모유 수유 및 유방관리 △영양교실 △아기용품 만들기 △산생아 돌

보기 △임신부 요가 △영유아 정서 발달 △산후 우울증 관리로 출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영유아 정서발달은 엄마와 아기의 애착 유형의 특징과 애착 강화 육아법에 대한 강의로 임신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임신부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해피마미 출산 준비 교실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문 기자

보성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잇따라 열린다

전국장사씨름대회·보성녹차마라톤대회·요트대회 등 개최

올 봄 녹차수도 전남 보성서 전국 단위 체육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2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벌교스포츠펀터에서 제2회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보성군체육회·보성군씨름협회가 주관한다. 개인전은 초등부·중등부 등 6개 종목, 단체전은 5개 종목이며, 1200여 명의 선수단이 경기에 참여한다.

오는 5월 4일에는 메타세쿼이아가로수 길을 달리는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가 예고됐다. 풀·하프·10km·5km 순으로 진행된다.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완만한 경사로 이뤄져 있어 마라톤러들에게 최고의 코스로 정평이 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보성녹차마라톤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5km 종목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

으로 런닝화, 풀·하프·10km 참가자에게는 티셔츠 또는 선글라스를 제공한다. 참가자는 대회 당일 보성군이 운영하는 울포해수욕장센터 방문 시 배번호를 제시하면 3000원이 할인된 1인 5000원에 해수 노천욕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5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울포솔밭해수욕장에서 2024 한국오피티스트 전국 요트대회가 막을 올린다. 보성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한국오피티스트클래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대한요트협회 소속 100여 명의 임원과 선수들이 참가해 2개오피티스트·토포즈) 종목 12개 부초 등·중등·일반로 진행된다. 울포솔밭해수욕장에서 무료 요트 체험을 함께 추진, 지역 축제 기간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상반기 전국 구



모 체육대회를 개최, 스포츠 메카 보성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오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한국문화공원 일원에서 보성다향대축제를 비롯, 보성군민의 날·서편제보성소리축제·일립산 철쭉문화행사·테일리콘서트·드론라이프쇼 등 다양한 축제를 펼친다. /보성=장국도 기자

강진 마량농공단지 100억 투입 '청년친화' 새 단장

청년문화센터 건립·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강진군은 2024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공모사업은 1988년 준공해 운영중인 노후 농공단지인 마량농공단지에 국·도비 7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00억원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협업사업을 발굴하는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량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문화센터 건립 구상안은 1, 2층에 치유실, 청춘카페, 체력단련실, 휴게실, 회의실 등을 배치하고 3층에는 주거형 원룸 12실과 쉼터를 배치했다. 주거형 원룸을 신설해 원거리타지역 출퇴근 근로자들의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해 청년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강진군에서 진행중인 미 프로젝트와 연계해 농공단지 내 도로정비와 조형물 설치, 녹지공간 확충, 야간조명시설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마량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으로 근로자와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쉼터를 제공할 것"이며 "마량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해 농공단지 재탄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순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연향들' 최종 확정

2일 입지 결정·고시... 입지 논란 마무리

순천시는 2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연향동 814-25 일원을 최종 결정·고시했다.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친화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개최 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연향동 814-25 일원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최종 확정하여 통보해 왔다 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연향들 일원을 공공자원화시설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고, 시는 입지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기, 악취, 수질, 토양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연향동지역환경청과도 환경영향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공공자원화시설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또한 확인받았다. 입지 결정·고시에 따른 입지 지형도면과 토지조서는 순천시 청소자원과 및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기술이 고도화되고 최첨단으로 발전한 만큼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고의 기술과

시설로 도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건설하여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것"이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 받은 만큼 더 이상 입지에 대한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관구 순천시장은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은 시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향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